



▶ 2009. 4. 7 배포  
▶ 총 2 쪽

## 보도자료

▶ 여성고용과 이주일 과장  
▶ 여성고용과 양연숙 사무관  
T E L : 02)2110-7295  
E-MAIL : yangys@molab.go.kr  
F A X : 02) 502-5442

### “서비스·사회적 기업에서 여성 일자리 만들어야”

- 노동부, 「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」 개최<4.7(화)>

- 서비스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.
- 노동부가 주최하고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주관하여 오는 7일(화)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리는 「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」에서 전문가들은 서비스업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자리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한다.
- 서비스업 관련 발표에서 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현주”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여성인력의 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 실태를 소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.

- 사회적기업 관련 발표에서 “부산대학교 곽선화” 교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.
- 이어 “(사)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김인선” 대표가 “경력 단절 여성의 희망기업, (주)우리가 만드는 미래”의 사례를 통해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여성기업의 모델 등을 제시한다.
-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, 간호 및 간병 등 돌봄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업은 여성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업이다.
- 사회적 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여성고용 창출을 통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준비이기도 하다.
- “정종수” 노동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정부는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, 또 빈곤 실업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중산층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결집 시키고 있다.”고 말했다